

# 최우수상 수상작

## 자아실현의 원동력, 공연예술학과

### 지역 예술인으로서의 시작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모두 멈췄던 시기 2020년, 나는 고향인 춘천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아노를 전공한 나는 제한적인 상황을 뒤로한 채 발레 반주자과정에 몰두하게 되었다. 취미 발레를 시작으로 접하게 된 발레 반주자과정은 현재 재학 중인 공연예술학과 박사과정을 진학 계기가 되었다.

무용, 음악 등 공연 예술과 마케팅 등의 심화된 교육을 통하여 고도화된 실기 능력과 이론 지식을 겸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적 요구에 관련 예술 분야의 실질적 지도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케 하는 ‘공연예술학과’ . 학과명을 보고 너무나도 심장이 뛰었다.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환경이 전과 많이 달라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생긴 신조어로 ‘N잡러’ 2개 이상의 복수를 뜻하는 ‘N’ , 직업을 뜻하는 ‘job’ , 사람을 뜻하는 ‘러(-er)’ 가 합쳐진 말이 생겨났다. 본업 외에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나는 마음속 깊이 연주자 겸 기획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변화되는 시대에 맞춰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는 걸 느끼게 되었으며, 훗날 내 고향인 춘천에서 활동을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은 생각보다 빠르게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공연예술학과에 진학하고 나서 그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학업과 동시에 발레 피아니스트로 서울예술고등학교 강사로 임용이 되었고 대학원에서는 재학생 대부분 현재 왕성히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이 대부분을 통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및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전업 예술인이 살아가기에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고 있다. 지자체 문화재단을 통해 전업 예술인들이 활동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 기회를 얻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나 역시 많은 실패로 좌절감에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조금씩 해 나갔다. 주어진 기회들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일까. 감사하게도 무용과 음악을 접목한 직업을 갖고 있는 나에게 관련된 다양한 공연 출연 기회가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지역 예술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춘천 KBS 라디오 커피엔 클래식 게스트 출연, 제1회 춘천 예술인 포럼 출범식에서 오프닝 공연과 대표 예술인으로서의 연설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 원동력의 근원 공연예술학과

지역 예술인들 대부분 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을 통해 개인 역량 활동을 한다. 지원 사업 준비를 위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 수립 과정은 나에게서는 혼자 너무나도 어려운 항목이기도 하였다. 공연예술학과 수업 중 ‘공연 기획 및 제작’ 과목이 있다. 해당 과목은 공연 기획을 하는 과정들을 배우고 직접 기획서 작성과 발표까지 실전에 적용할 수 있어 2023년 춘천문화재단과 강원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에 모두 다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공연으로 인해 많은 무대를 오르내리지만 공간의 이해가 다른 예술 계통과 다르게 부족하다는 점을 몸소 느끼고 있었고 갈망하고 있는 차나 ‘무대 연출법’ 수업으로 직접 공연장의 무대의 구조와 다양한 무대 디자인 사례들을 통해 앞으로 내가 기획할 공연에서 어떻게 연출할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무대를 화려하게 사용하는 무용과 다르게 클래식 음악 공연은 단조로울 때가 많다. 하지만 융복합의 시대인 만큼 춘천 시민들의 발전된 문화 향유를 위해 좋은 음악과 더불어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연구하는 나에게서는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동안 전공 실기 중심의 수업이 아닌 학문적인 수업을 들으니 박사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흥미롭고 재미있게 대학원을 다니게 되었다.

###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학우들에게

‘본인 전공 외에 다양한 경험을 하여라.’

취업 및 진학으로 우리는 일명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만 있다. 세상은 넓고 다양하기에 그 외 경험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크고 작은 경험들은 나중에 꼭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마련이다. 그 경험으로 인해 우리는 인생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재료라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나이라고 하는 20대, 미래에 관한 불확실성으로 고민과 방황에 놓여 있게 된다. 나는 그 시기에 많은 대외 활동들을 찾아서 하였다. 어렸을 적 음악 하나만 달려왔던 나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어 폭넓은 사고를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단지 책 또는 매체를 통해 얻는 것보다,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훨씬 많은 가치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벌 또는 취업 등 사회적인 시선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유를 찾아보기 어렵더라도 나를 위해 다양함을 시도해 보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 생각하라’

과거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죄인 취급을 받았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열심히 피땀을 흘려 얻은 결과인데 다른 메달 색깔은 인정받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 시간이 흘러 세상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느낀 것은 2020 도쿄 올림픽이었다. 당시 국가대표들이 메달을 따지 못했을 때 그들은 인터뷰에서 당당히 말하였다.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을 통해서 그만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거나 계획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자신만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과정이 소홀해질 수 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른다.’ 라는 말은 옛말이다. 살아가는데 있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계속 좌절하며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길다. 모두가 불완전한 인간이고 계속해서 자기 계발을 통해 더욱더 나은 인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 있어 그 과정들이 후회 없이 성실히 수행한다면 결과가 어떠하던 잘 마무리 짓는 때가 올 것이라 믿는다. 어려움을 속에 주체성과 직관력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먼 훗날 돌아봤을 때 이해하는 순간들이 올 것이다.

따라서 대학원을 진학 생각이 있다면 본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라도 거침없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

## 글을 마치며

우연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고 참여하게 된 2023학년도 대학원생 수기 공모전에 그동안 공연예술학과 박사과정을 다니면서 다양하게 한 활동들 및 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

돌이켜 보면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입학 과정 자체가 나에게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 내성적인 성격인 내가 시작부터 망설임 없이 원서를 내고 난생처음 실기 시험이 아닌 오로지 면접으로 입학시험을 본 것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었다. 들어와서는 꿈에도 꾸지 못할 여러 크고 작은 연주의 기회들을 얻을 수 있었고, 매 수업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루어지는 박사 수업의 특징으로 말주변이 없었던 내가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 또는 연설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만약 내가 이곳에서 공부하지 않았다면 감히 이뤄내지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다.

더불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며 우수한 성적도 얻었다. 여러모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생활이 내 인생에서 참 중요한 챕터로 기억될 것이다.

나의 소신으로 시작하게 된 공연예술학과 박사과정이었지만 사실 고민도 많이 했었다. 피아니스트라는 본래의 내 모습이 있었기에 과연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적지 않은 혼란의 시간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배우며 얻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극 추천할 것이다. 대학원 재학 중에 이런 과정들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부담 없는 학업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국립대학교의 장점인 등록금이기 때문이다.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도 사실 박사과정 등록금은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위치상 집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어 접근성도 좋았다.

모든 과정들이 딱 떨어졌던 강원대학교의 박사과정. 어느덧 논문자격 시험과 졸업 논문만을 남겨두고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라고 있다.